



## 아나운서클럽 2012년 정기총회 개최

2011년 활동보고, 감사보고, 2012년 활동계획 등으로 진행  
김동건 회장 인사말 “원로들의 견제와 회원의 단합에 고마움을 느낀다.”



3월 7일 여의도 열빈, 36명 참석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의 2012년 정기총회가 3월 7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여의도의 중식당 ‘열빈’에서 열렸다. 36명의 회원이 참석한 정기 총회(사진)는 김동건

2011비추미여성대상 달리상 수상  
성선경 회원이 만찬 제공

현역들은 방송국 사정 전하며  
선배들의 경험과 도움 요청

다음 정례 모임은 5월 24일(목)  
저녁 6시 30분, ‘열빈’에서

회장의 인사말, 박민정 사무총장의 2011년 활동 보고, 김상준 감사의 감사 보고, 2012년 활동 계획, 맹관영 회원의 신년회 호 소개, 정홍숙 회원의 시낭송-토머스 칼라일의 ‘오늘을 사랑하라’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동건 회장은 회보 발간의 성과를 언급하고 원로 선배님들의 견제와 총회에 참석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민정 사무총장은 작년의 활동을 바탕으로 올해는 새주소 시행에 따른 주소록 발간과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 모색 등 새로운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 아나운서대회에 나오던 중 회차할

정도로 교통 체증을 겪었던 임택근 고문과 황우겸 고문이 한 시간 전에 도착한 가운데, 올들어 처음 만난 회원들이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작년 10월 삼성생명 주최 ‘제11회 비추미여성대상’의 여성 문화·언론 및 공익 부문 ‘달리상’을 수상한 성선경(사회적 기업 ‘동천’ 대표, 본보 제4호 7면 게재) 회원이 참석, 이번 수상에 아나운서 경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으며 답례로 총회 만찬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민창기 회원이 원로 선배님들의 노익장을 뽐내고 기뻐 대가 있어 고맙다며 회원 모두의 건강을 축원했고, KBS 아나운서실 김성수 실장은 방송국의 사정을 전하며 선배님들의 경험과 도움을 요청했다. 방송가가 파업 등으로 어수선한 상태여서 현역들의 참여가 저조해 아쉬웠지만, 이제껏 모인 가운데 가장 재미있었다는 박종세 고문의 표현처럼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원로들의 견제와 회원의 단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기 총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이하 명단 호칭 생략, 가나다 순)

권혁화, 김규홍, 김동건, 김상준, 김성수, 김홍수, 맹관영, 민창기, 박민정, 박영용, 박종세, 박찬숙, 배덕환, 성경환, 성기영, 성선경, 양진수, 양창석, 전영우, 전찬희, 정경래, 정홍숙, 채영신, 최만린, 우제근, 이계진, 이규원, 이은정, 이해옥, 이후재, 임국희, 임주완, 임택근, 황량, 황우겸, 황인우

다음 정례 모임은 오는 5월 24일(목) 저녁 6시 30분, ‘열빈’ (02-783-3838)에서 열릴 예정이다.

## 아나운서연합회 2012년 첫 회장단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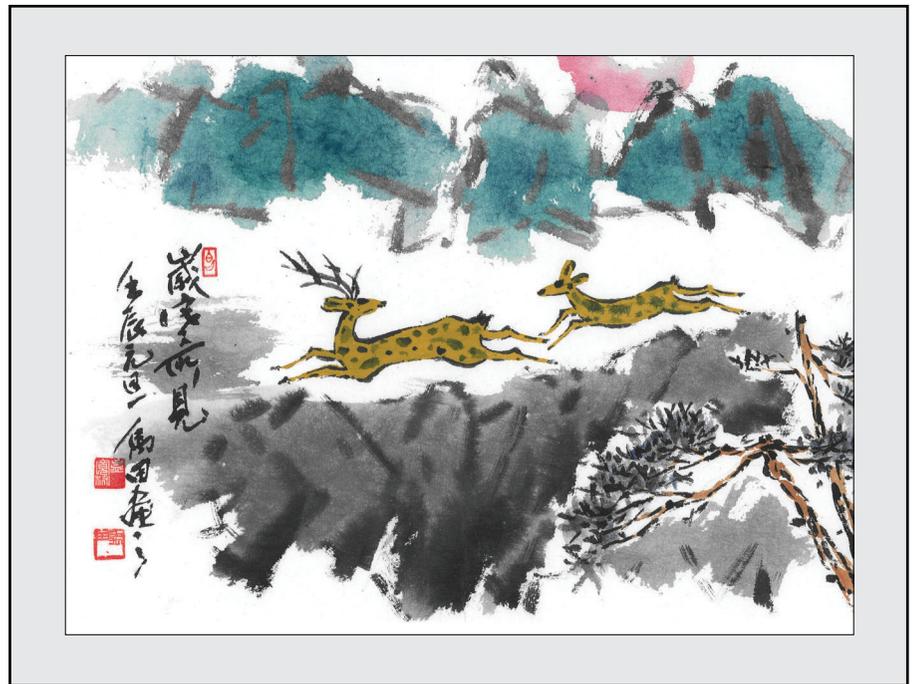
## 전문성 강화 위한 아나운서아카데미 역점 추진

한국아나운서연합회(SBS 손범규 회장) 제14대 회장단이 지난 1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2012년 첫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의 사업을 정리하고 올해의 사업계획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지회의 분담금 및 개인 회비 문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강용석 의원 소송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의 2012년도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대전에서 지역 아나운

지역 아나운서 대상 1박2일 세미나  
런던 올림픽 대비 스포츠캐스터 교육  
NHK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제작 참여

서 대상 1박2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아나운서아카데미’ 역점 추진, 둘째 7월 27일부터 열리는 런던 올림픽 대비 스포츠캐스터 교육, 셋째 외부 직능단체와 연계 방송언어 교육, 넷째 일본 NHK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주일간 대본 작성과 제작에 참여하는 등 해외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禹田 孟寬泳 新年揮毫

歲寒所見

푸른 소나무 아래 뛰노는 사슴처럼 상서로운 일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회보 작가 맹관영

• 1967년 TBC 입사, 1997년 KBS 정년퇴직  
현재 한국문화협회 고문  
대한민국서예문인회총연합회 수석 부회장  
• 본 회보 제호 작가



## 결혼 이민자를 위한 태교동화 낭독 봉사

서울시 사업에 참여, 효녀심청 흥부와 놀부 열두 띠 등 5편 녹음  
동화책 CD로 보급, 서울시 홈페이지에 전자책으로 동시 제공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이 서울시와 손을 잡고 결혼 이민자를 위한 태교동화집 ‘엄마의 속삭임’ 녹음 봉사에 나섰다. 박민정 사무총장과 손범수(사진 오른쪽 위), 임성민(사진 왼쪽 세 번째) 회원은 1월 13일 태교동 (사)마포공동체라디오에서 전래동화 ‘효녀심청’, ‘흥부와 놀부’, ‘토끼와 자라’ 3편과 한국의 문화를 다룬 ‘열두 띠’와 ‘돌잔치’ 등 5편을 무료로 녹음했다.

3000여 시간 녹음봉사 기록  
박민정 사무총장

아나운서 출신 텔런트 임성민  
프리랜서 손범수 등 재능 기부

전날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촬영하고도 아침 일찍부터 녹음실에 나온 임성민 회원은 좋은 일에 동참하게 해준 클럽에 고마움을 전했고, 다문화가족 담당자와 (사)마포공동체라디오 자원봉사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 도서를 녹음하며 3000 시간이 넘는 봉사기록을 세워 강남 구자원봉사센터로부터 금배지를 받은 박민정 사무총장이 먼저 ‘열두 띠’를 녹음한 후 임성민 회원이 ‘효녀심청’과 ‘돌잔치’를, 끝으로 손범수 회원이 ‘흥부와 놀부’, ‘토끼와 자라’를 녹음했다.

녹음실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이 이어지는 관계로 여유 있게 준비하지 못해 아쉽

다는 말과 달리 손 회원은 능숙한 연기력을 발휘하며 NG 없이 낭독해 관계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서울시는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교재 및 자녀들의 이중 언어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도, 우애, 지혜, 재치 등 한국의 보편적 정서를 담은 전래동화 및 전통을 소재로 한 창작 동화 5편을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러시아 등 10개 국어로 제작했다.

이와 함께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의 도움을 받아 한국말이 서툰 결혼 이민자가 5-6개월부터 청각기능이 형성되는 태중 아기에겐 한국어로 들려줄 수 있도록 한국어 CD로 만들어, 앞으로 각 자치구 민원실, 서울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서울시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동시 제공한다.



마포공동체라디오에서 태교동화를 녹음한 손범수(사진 오른쪽 위), 임성민(사진 왼쪽 세 번째) 회원



회보창간 1주년기념 특별기고 - 미국에서 축하합니다

아나운서 동정과 프로필 사진 볼 땐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이...  
고국소식과 함께 향수 달래며 소통할 수 있게 해줘 감사

(사)미주방송인협회/여의도클럽USA 회장 김흥수

회보 창간 1주년을 맞은 (사)한국아나운서클럽 회원 여러분! 미주방송인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3월 뜻밖에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창간호를 받아보고 이곳 미국 LA에 거주하는 전·현직 방송인들이 더없이 기분 좋은 이야기꽃을 피웠던 게 엇그제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계간지를 발행하며 잊지 않고 꼬박꼬박 미국까지 보내주고, 더구나 제2호에 우리 (사)미주방송인협회의 상세한 소개와 원로 방송인들을 모시고 촬영한 단체사진까지 실어주신 배려에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미국에 오기 전 TV 카메라맨으로서 아나운서와 스튜디오에서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고국을 떠나 해외에 나와 살고 있으면 누구나 고국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게 되는데, 매년 많은 정보와 함께 향수를 달래며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시는 회보 70부는 LA, 뉴욕, 시애틀, 워싱턴 등에 거주하는 미주방송인협회 회원들에게 제가 직접 배포하는데, 특히 주소가 확인된 미주 거주 아나운서들이 매우 기뻐하며 이 회보를 통해 고국 아나운서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읽은 후엔 소중히 간직하며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다고 하고,



김흥수 회장, 김영우, 이공순, 정영호, 홍우창, 송현식, 이승상 회원 등이 함께한 미주방송인협회 35주년 기념식

미주방송인협회 사진과 소식 실어주고 매번 회보 보내줘 감사  
LA, 뉴욕, 시애틀, 워싱턴 사는 회원들에게 직접 70부 우송

지난 1월 미주방송인협회 35주년 맞아 제1회 방송인상 제정 시상  
한국아나운서클럽과 미주방송인협회의 유대가 더 돈독해지길 바라

예능계에 종사했던 분들까지도 서로서로 전달해 돌려보다니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의 가치를 실감하게 합니다.

행사 소식과 각 방송사별로 정리된 정보 및 아나운서들의 동정과 각종 사진들을 볼 땐 더욱 반갑지요.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의 내용과 편집 수준은 수년간 발

행해 오고 있는 타 단체들 못지않게 훌륭해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동건 회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세심한 노고에 경하 드리며 머나먼 타향에서나마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이 기회에 미주방송인협회 소식 몇 가

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4일 '미주방송인협회 창립 35주년과 제1회 방송인상 시상식' 행사(사진)를 마쳤습니다. 제1회 방송인상은 MBC America 박용수 편성제작 팀장과 Radio Korea 안성일 보도국 부장 대우가 받았습니다.

또 현재 미주 방송인들의 인명록 수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북미에 거주하는 전·현직 방송인들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연락이 두절된 전직 방송인들을 찾아 주소, 전화, 이메일 등을 수집 중에 있으며 금년 전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012년 사업 계획으로 방송인 골프대회, '미주방송' 제12호 회보 발간, 전용 웹사이트 개설, '우리말 고운 말 쓰기 운동' 세미나 개최, 취미클럽 결성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아나운서클럽과 미주방송인협회의 유대가 한층 돈독해지길 바라며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1968년 KBS 입사, 카메라맨으로 활동하다  
1980년 미국 이민  
1981년 LA 한국TV를 거쳐  
1983년 KTE(KBS 자회사) 근무  
JSTV/방송국장, KAN TV 사장 역임



클럽 10년지기의 회보창간 1주년기념 특별기고

선배가 넘겨준 빛바랜 초록색 파일에는 ...클럽 20년의 파노라마



1975~79년 MBC 아나운서, EBS TV, KBS 한민족방송 프라팬서 활동. 현재 현대백화점 본점 문화센터 스피치 강사, 케이블TV C&M현장대담 진행

아나운서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원로와 현역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클럽 사무국에서 일한 지도 10년 세월이 지났다. 2001년 제4대 전영우 회장 취임 시 원종배 회원과 함께 간사로 선임되자, 황우겸 고문님께서 내게 빛바랜 초록색 파일을 건네 주셨다.

그 안에는 1991년 동우회 설립 당시 정관부터, 통지문, 초대장, 회계 보고 등 10년의 역사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총무, 사무국장, 사무총장으로 직함은

바뀌었지만 선임자처럼 잘 해 낼 수 있을지 어깨가 무거웠던 기억이 새롭다.

맨 처음 배덕환 선배님이 클럽 행정을 맡았다가 호주로 이민가시며 정경래 선배님이 대신하셨고, 제주 발령으로 김규홍 선배님이 이어받아 지금 미국에 거주하시는 강미란 선배님과 함께 굶은일을 도맡아 하셨다. 아나운서 친목단체로 뿌리내리기까지 헌신한 초창기 임원진과 회원들께 경의를 표하며, 클럽 발전에 초석을 놓아 주신 분들을 돌이켜 본다.

1991년 3월, 황우겸 고문님이 주도해 각 방송사 퇴직 아나운서 41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한국아나운서동우회'의 창립회원 명부는 이리하다.(이하 명단 호칭 생략, 가나다순) 강찬선, 김규홍, 김두석, 김양일, 김재영, 김주환, 김인권, 박노설, 박종세, 배덕환, 송영규, 안용민, 오남렬, 유필기, 이공순, 이광주, 이규영, 이병열, 이수열, 이영렬, 이원춘, 이철규, 이철원, 이팔웅, 이후재, 임문택, 임택근, 전영우, 전웅덕, 정경래, 정기재, 정영호, 정희준, 최계환, 최두현, 최만린, 최승빈, 최승일, 한경희, 홍기욱, 황우겸,

이상 41명의 회원으로 출범하였다.

그 중 안타깝게 이미 고인이 되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 클럽이 지속될 수 있었다. 초대 강찬선 회장, 제2대 황우겸 회장을 비롯해 당시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후원금이나 식사대금을 각출하며 모임을 이끌었다.

그 후 창립회원 외에 길종휘, 김동건, 김무중, 김순환, 김승한, 김용, 김재익, 박병학, 박찬숙, 변웅전, 송석두, 우재근, 원창호, 이계진, 이우백, 이장우, 이창호, 정경수, 조병해, 차인태, 황인용 회원이 가입하며 더 많은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결속력을 다진다.

1996년 3월에는 현역도 참여하는 '한국아나운서클럽'으로 재탄생할 때 김무중, 박종세, 이계진, 이우백, 이철원, 임택근, 전영우, 최만린, 황우겸 회원이 특별기금을 쾌척해 토대를 공고히 하였다. 이듬해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제3대 임택근 회장 취임식은 우리 '한국아나운서클럽'의 존재를 널리 알린 큰 잔치였다.

총무 배덕환 정경래 김규홍 등의 노고로 오늘 있어  
초창기 선배들의 헌신과 후원금 쾌척으로 운영  
1991년 41명 창립회원의 초심으로 전통 이어갈 터

'한국아나운서클럽'은 제4대 전영우, 제5대 박종세 회장으로 이어지며 많은 여성 회원과 현역들의 동참을 이끌어 더욱 폭넓게 발전한다. 하지만 여러 회원의 후원금에도 불구하고 경조사와 식대 보조로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임원들의 기부금 액수도 늘어 갔다.

2005년 4월 제6대 최만린 회장 취임식과 2009년 3월 제7대 김동건 회장 취임식은 63빌딩에서 많은 내외귀빈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2005년 당시 최만린 회장이 1000만 원, 김동건 수석 부회장이

1500만 원을 쾌척하여 행사를 진행했으며, 그 나머지가 클럽 기금의 종자돈이 되었다.

한편 2010년 2월 정기총회는 변웅전 수석 부회장의 초청으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당을 견학한 후 귀빈식당에서 식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황우겸 고문님과 박찬숙 부회장은 행사 때마다 후원금과 경품, 선물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편집회의 결과 법인 설립을 마친 2005년 12월 15일을 기점으로 2006년부터 후원금을 내 주신 분들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 2006년 김동건 이명희 이지현
  - 2007년 이계진 박종세 정미정 이금희 손범수, 진양해 임국희 박영주(KBS) 최만린 박찬숙 정미홍
  - 2008년 우재근 강영숙 이계진 유정현 박찬숙 임택근 김광진 안희진 변웅전 한선교 이우백
  - 2009년 황인용 최만린 박경희(KBS) 박영주(KBS) 이선희(BBS) 서은선 황우겸 박종세 오영실 이종은 임택근 이계진 이후재 유정현 성연미 임국희 김규은 이지연
  - 2010년 박찬숙 차인태 이지현 이병혜 이소연
  - 2011년 성연미 한선교 이선미 최화숙 최만린 한국여성 아나운서클럽 회원 일동(김윤희, 김인숙, 장금자, 윤영중, 문복순, 민병연, 이현숙, 김경숙, 이연영, 이정희)
  - 2012년 현재 황우겸 차인태 성연미 김윤희한 우재근
- 매번 소식을 전해 줘 고맙다며 거금을 내 주신 이우백 선배님을 비롯해 그 동안 집행부를 믿고 연회비와 후원금을 기탁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클럽 사무국과 회보 편집위원들은 아나운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선배로부터 이어받은 아나운서의 전통을 후배에게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박민정 사무총장 배상

**초대석** 제 6대 회장  
최만린 고문

# 이제는 모든 것 버리고 삶의 본질에 귀 기울인다



서울 정릉 자택 작업실에서 김민지 아나운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로 지은 빌라가 아니고요, 그냥 집이에요, 집.” 처음엔 아리송했던 그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임을 최 고문 집을 발견하고서야 알았다. 골목골목 하얀 시멘트로 마감한 빌라들이 들어선 정릉의 언덕길. 그 가운데 세월의 흐름과는 상관없다는 듯 오래된 단독주택이, ‘그냥 집’이 호젓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갈한 대문은 꾸밈이 없었고 크지 않은 마당을 지나 들어서니 오래된 주택 특유의 웬지 모를 그리움이 고개를 들었다. 군더더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직한 그곳에, ‘작은 연못 물 흐르는 소리를 유일한 사치 삼아 살고 있다.’는 최만린 고문이 있었다.

자연과 생명의 본질,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저명한 조각가, 서울대학교 미대 학장을 지낸 조각과 교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직접 발로 뛰며 법인화 과정을 이끈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장. ‘하나의 무게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직책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최만린 고문의 프로필을 접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정답을 찾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냥 농부가 밭에 나가 밭일하듯이 하는 것이지요. 뿌릴 때가 되면 뿌리고, 거둘 때 거두고……. 나는 재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지요.” 1935년생인 그는 가장 감수성이 예민했을 청소년기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갈급했던 생존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고파 중이 되려 했던 적도 있다. 그러나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한낱 도피처로 삼는 건 비굴하다는 생각에 마

음을 다잡고, 목탁을 두드리듯 흙을 두드리겠다며 미술 대학에 진학한다. 그 후 잡념, 야심 없이 작품에 몰두했던 것일 뿐 예술가로서 무언가를 정해놓고 꿈꾸었던 것은 아니란 이야기였다.

아나운서라는 직업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현실적인 이유로 지원했어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줄 알고 계신 할아버지께 죄송해서 집을 나와 하숙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가정교사로 아르바이트 하면

**자연과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저명한 조각가  
서울대 미대 학장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역임**

**마음으로 받아들인 좋은 언어로 방송해야  
방송 잘하기보다 좋은 방송 하는 후배 많았으면**

서 학교는 나왔는데 대학원 가기가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아나운서가 생존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밟는 동안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작업을 병행한다. 예술을 끝까지 짚어주어야 할 업으로 여기는 그에게 2년간의 외도는 삶이 유지되도록 도와준 고마운 인연이자, 짜릿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나운서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생각과 마음과 몸을 바쳐 일하지 못하는 현실에 괴로워했다. “사실 저같이 실수 많은 아나운서도 없을 겁니다. 음악 프로그램하면서 확장



아내인 성우 김소원의 품에 안긴 첫아이를 스케치하며

지에 그림을 그리다가 악장이 끝난 걸 깜빡하고 멘트 순서를 놓친 적이 많아요.”

갈등 끝에 터득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생각이 무엇이

냐, 가슴에 무엇을 담느냐가 같으면 무엇을 하든 같다는 거죠. 다만 나는 손재주와 감성으로 하는 흙 작업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한번 예술과 인연을 맺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예술의 일부’라 여기며 살아가기 마련이다. 작품의 재료부터 인생의 전환점까지, 살아가며 부딪치는 크고 작은 선택을 ‘예술’이라는 업이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나 역시 어린 시절부터 미술을 전공해 아직까지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탓에 최만린 고문의 이야기에 공감이 갔다.

한국아나운서클럽과 후배들에 대한 바람을 들어보았다. “한 가정에 가풍이 있듯이 아나운서 세계도 통합된 질서 속에서 서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심점이 필요해요. 그것을 바탕으로 다듬어간다면 아나운서의 정신을 잘 이어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요즘 후배들 방송 참 잘하지요. 하지만 잘하는 것보다 ‘좋은 방송’을 생각해줬으면 해요. 몸, 화술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인 좋은 언어로 방송하는 후배님들이 나오면 더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최만린 고문은 얼마 전부터 작업의 화두를 ‘공경’으로 삼았다. 최근 그의 마음에 자리하는 것이 ‘비움’인 까닭이다. “딱 자기가 사는 것만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얻어 살았던 시간은 내 손으로 깨끗이 치우며 살아가고 싶어요.” 주변사람의 허물까지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의 마음으로 이제는 버리는 일만 남았다고 말하는 최만린 고문. 삶의 본질에 귀 기울이며 작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채움과 비움이 삶과 작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는 진정한 예술가였다.

글/SBS 김민지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OB초록회

##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며 정을 쌓아온 35년

김선희 OB초록회 총무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남궁미, 안주희, 박중순, 최화숙, 김채영, 서은경, 김선희, 임국희, 서은선, 박민정, 최은형, 노영인 회원

**70년대 중반 MBC 여자 아나운서 모임 결성**

‘초록회’는 1970년대 중반 MBC 현역 여자 아나운서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각자 퇴직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어서 현역 여자 아나운서 모임과 구분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OB초록회’라 부른다. 우리 모임에는 70년대 당시 2명의 여 프로듀서 노영인, 박찬순 선

배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임국희, 김채영, 박찬순, 노영인, 안중순, 이연한, 박민정, 이명순, 반주원, 최은형, 황경자, 박중순, 이인숙, 서은선, 김선희, 안주희, 최화숙, 남궁미 등 18명의 회원이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만나 우애를 나눈다.

오래도록 방송을 진행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낸 임국희 선배를 회장으로 모시고 총무는 돌아가며 맡고 있는데, 지금은 나 김선희가 안주희의 도움을 받아 봉사 중이다. 박민정 선배, 나, 최화숙 동기는 동작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한국아나운서클럽의 이름으로 명품한국어를 강의했고 최화숙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며, 동기생 안주희는 인물화의 매력에 빠져 열심히 그림 그리며 지낸다. 또한 주로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노영인 선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입담으로 ‘OB초록회’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 외화번역가로 유명한 박찬순 선배는 지난 2006년 환갑의 나이에 소설 ‘가리봉 양꼬치’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우리 모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었다.

1995년부터는 후배 여자 아나운서와 PD, 기자들에게 더욱 정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상을 주며 한해를 흐뭇하게 마무리하고 있다. 그 동안 제1회 수상자 조일수 아나운서를 시작으로 유혜자(라디오PD), 김은주, 김

**매월 첫 번째 목요일 만나 정담 나누어  
1995년부터 후배 여성 방송인에게 격려상 시상**

수정(현 정책개발부장), 박영선(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은주(라디오PD), 황선숙, 홍은주(기자,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박나림, 이진숙(당시 국제부 기자, 현 홍보국장), 강영은(현 MBC아카데미 이사), 김지은(현 코바코부장), 이주연, 방현주, 차미연, 김현경(북한 전문기자), 하지만에 이어 작년에 박소현 아나운서가 선정되었다.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며 정을 쌓아가는 OB초록회! 2010년에 임국희 선배가 시택인 창녕의 고택으로 회원을 초대해 1박 2일을 함께한 것(사진)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안동 MBC 사장인 이윤철 후배의 초청으로 현역들과 함께 안동에서 워크숍을 열었으며 MBC 50주년을 맞아 강촌 엘리시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앞으로 ‘OB초록회’의 외박 나들이는 계속 늘어날(?) 하다. 아나운서 시절의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매월 첫 번째 목요일의 초록회 모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1976년~79년 MBC 아나운서, 현 초록회 총무



### ‘대전·충남아나운서협회’ 를 아시나요?

같은 지역에서 ‘아나운서’란 이름으로 각기 다른 채널에서 방송하며 지내던 지역 아나운서들이 상호협력과 친목도모,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나로 뭉쳤습니다.

2005년 6월 20일 둔산동의 한 식당에서 대전·충남지역 방송사 아나운서들이 협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MBC 김학선 편성국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해 준비에 들어가 2006년 1월 23일 대전대학교에서 각계 인사들을 모신 가운데 출범을 선포합니다. 대전과 충남의 7개 공중파 방송 27명의 아나운서들로 ‘대전·충남아나운서협회’가 탄생해 지금은 5개 공중파(대전 MBC, KBS, TJB, CBS, TBN) 24명의 아나운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제2대 KBS 배유선, 제3대 CBS 이태현 회장의 뒤를 이어 작년 12월 8일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송년의 밤 행사에서

#### 제4대 TJB 이명숙 회장 취임

대전시교육청과 MOU 체결  
지역 학생들에 스피치 교육 실시

#### 제1회 올해의 방송진행자상

대전MBC 김학선  
KBS대전 배유선 수상

대전 충남의 5개 공중파  
MBC, KBS, TJB, CBS, TBN  
아나운서 모임

TJB 이명숙 아나운서가 제4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학선 대전 MBC 아나운서와 KBS 대전 배유선 아나운서가 ‘제1회 올해의 방송진행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전·충남아나운서협회’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 ◆ 공주영상대학 대학방송국원 강의

2006년 7월 12일과 13일 공주영상대학 대학방송국 학생 100명에게 발음, 발성, MC, 내레이션 기법 등을 가르치며 희망을



어르신 무료 급식 봉사 중인 대전·충남아나운서협회 회원들  
왼쪽부터 TJB 김경화, MBC 김선지, TJB 조윤경, MBC 김보은, TJB 최승희(필자), KBS 최연수, KBS 손지화, TJB 이승현, KBS 김연선, CBS 이태현, KBS 김지연, TJB 이명숙(회장)

심어주었습니다.

#### ◆ 공군본부 의전장교 아카데미

2007년 4월 28일과 29일 MBC 공개홀 및 회의실에서 공군본부 의전장교 40명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열어 실전에서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전달했습니다.

#### ◆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2010년 9월 30일 금산 재원초등학교를 찾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일일교사로 나섰습니다. 방송체험 시간에 장래희망이 아나운서라는 찬원이는 평소 소극적인 모습과는 달리 씩씩하게 원고를 읽어 큰 박수를 받았답니다.

#### ◆ 어르신 무료 급식 봉사

2008년부터 매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봉사에 나섰던 협회 회원들이 2011년 11월 21일 급식 봉사를 하기 위해 중촌동 ‘효심정’에 모였습니다. 대전 YWCA가 20년 동안 독거노인들에게 단돈 100원에 따뜻한 점심을 대접한 곳이지요. TJB 아나운서 7명, KBS 아나운서 5명, MBC 아나운서 3명이 앞치마를 두르고 장화까지 신고 나니 누가 봐도 훌륭한 조리사! 서툰 점이 많았지만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쏟았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방송보다 요리가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TJB 윤창기 아나운서가 오랜 자취생활로 닦은 실력을 발휘했고,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며 배식했던 MBC 김선지 아나운서의 모습에서 따뜻함이 배어났습니다. KBS 최연수 아나운서는 끝까지 굶은일은 도맡아서 하며 맘머느리 같은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모여 식재료 손질부터 160인분의 배식과 설거지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한 마음으로 방송에 임할 수 있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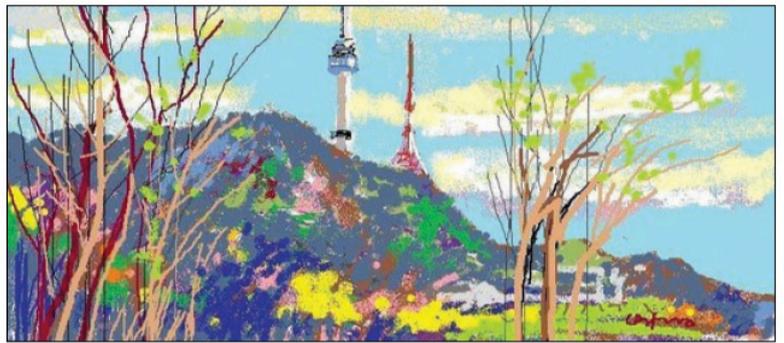
#### ◆ 대전시교육청과 지원협약 체결

지난 2월 14일 전국 최초로 지역 교육청과 “대전교육사랑운동” 지원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함께 ‘해피스쿨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분기 별 스피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도 기대해 주세요!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는 단합을 도모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글\_TJB 최승희 아나운서



CG 삽화  
이정부(전 KBS)  
(목역산의 봄)



### 사장님과 아나운서 대화 모임

1월 31일 본관 6층 회의실에서 김인규 사장과 70여 명 아나운서들의 대화 모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아나운서실 조직 확대, 아나운서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 해외 연수 등 각종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한국어 발음 사이트 개설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해 발음연습을 할 수 있는 한국어 발음 사이트가 KBS 홈페이지에 개설되었다. 표준발음법을 아나운서 음성으로 배워보는 ‘한국어 따라잡기’, 박경희 아나운서에게 듣는 말하기 방법 ‘아나운서처럼 말하기’, 아나운서가 직접 평가하는 ‘나도 발음왕’ 코너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 공사창립39주년기념식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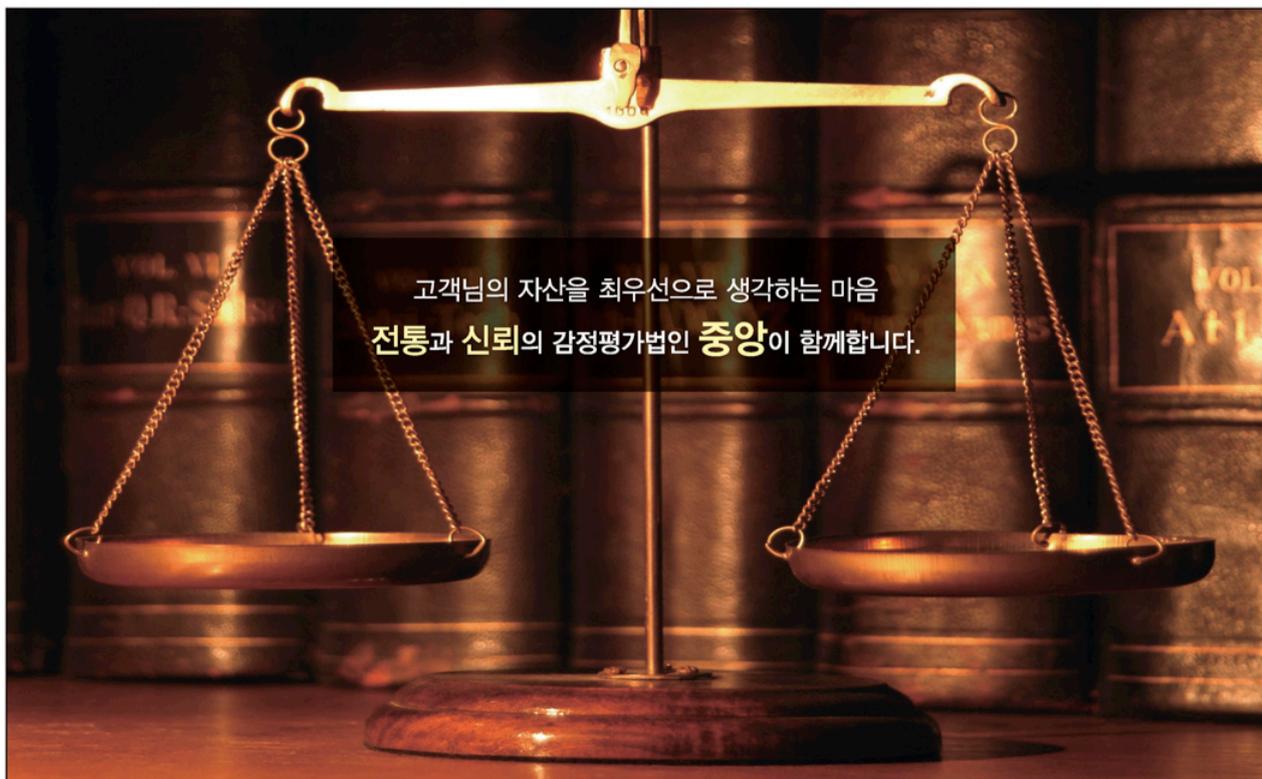
#### 디딤돌 봉사단 우수상

3월 2일 열린 공사창립 39주년 기념식에서 아나운서실 디딤돌 봉사단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방송 현장에서 뛰는 아나운서들이 시간을 내 2010년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2인 1조로 결식아동 도시락 나눔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KBS의 나눔 문화 실천과 위상 강화에 도움을 준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 전현무 아나운서 특별인센티브상

남자의 자격 출연해 공사 수익에 기여하고 프로그램 경쟁력에 도움을 준 전현무 아나운서가 특별 인센티브 포상을 받았다. 그동안 기자, PD 직종 위주였던 인센티브 포상에 앞으로 아나운서들의 수혜가 늘어날 전망이다.



### JaA 중앙 감정평가법인 | 대표이사 : 류상동

#### · 감정평가란?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이를 가액으로 표시한 감정평가서를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입니다.

#### · 주요 사업

##### [담보평가]

담보대출업무에 필요한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의 담보를 감정평가

##### [기업평가]

산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자산평가, 국공유지 매입평가, 무형자산평가

##### [보상평가]

공공용지의 매수, 수용 등 각종 공익사업과 관련된 보상감정평가

##### [경매 및 소송]

경매, 공매 감정평가, 민·형사 및 행정소송 등을 위한 감정평가

##### [재개발·재건축]

종전·종후자산평가, 국공유지 매입평가, 법인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부동산 컨설팅]

입지선정 및 투자분석, 타당성 검토,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 부동산 자산운용 자문 등

(주)중앙감정평가법인

www.jaa.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9-11 리더스빌딩2층 Tel 02-598-9500 Fax 02-598-9600

지사	Tel	지사	Tel	지사	Tel
북부지사	031-879-3900	중부지사	043-225-3800	대구경북	053-751-3600
경인지사	032-428-0428	충청지사	042-365-0900	울산지사	052-261-1505
경기지사	031-254-5700	경남지사	055-762-9661	광주전남	061-375-3370
동부지사	031-780-7300	전북지사	063-272-0001		



###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재 <사랑해요 대한민국> 발간

2012년 1월, 책과 동영상 DVD로 구성된 한국어교재 <사랑해요 대한민국>(사진)을 사단법인 '같은세상' 과 함께 펴냈다.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이주여성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이번 교재는 다문화가족지원단, 코리아 파운데이션, 세종학당 등을 통해 전국 200여 개 다문화가정 한국어교



### 공채를 통해 김소영, 이재은 입사

2011년 MBC 공채 신입사원 모집을 통해서 2명의 여자 아나운서가 뽑혔다. 3개월에 걸쳐 총 5차의 전형과정을 통과한 후 현재 MBC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김소영(오른쪽 사진) 과 이재은(왼쪽 사진)이다. 김소영은 OBS 아나운서 경력을, 2011 미스유니버시티였던 이재은은 'TV조



### 2011년 영예의 수상자-김정일, 김소원, 최기환, 박선영 아나운서

작년 3/4분기 '생방송 투데이' 를 진행한 김정일 아나운서가 '2011 SBS 올해의 아나운서' 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작년 12월 30일 서울 등촌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2011 연예대상' 아나운서부문 상은 '기적의 오디션' 을 진행한 김소원 아나운서가, SBS 아나운서 특별상은 '8뉴스' 앵커 박선영 아나운서가 받았다.

또한 12월 29일 과천시 중앙동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영

상대전' 에서는 '생방송 모닝와이드 3부' 와 '접속 무비월드' 를 진행하는 최기환 아나운서가 지상파 방송사 카메라 감독들의 투표를 통해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 영상이 탁월한 스



### 2월 합평회 김주희, 유혜영 아나운서 뉴스 검토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지난 1월 1일부터 새로 '1040 뉴스' 와 '주말 모닝와이드 뉴스' 에 각각 투입된 김주희, 유혜영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뉴스 합평회가 열렸다. 작년 12월 8일 '모닝와이드' 뉴스 진행자 이윤아 아나운서의 합평회에 이어 열린 2012년도 첫 합평회는 선배들의 조언과 신입 앵커들의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마



### 아나운서부에 책 출간 바람

1년간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공부한 박재홍 아나운서(표준FM <싱싱싱>진행)가 하버드한인학생회 기획 <하버드는 공부벌레 원하지 않는다>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아나운서 생활 10년, 완벽하지 않은 전반전을 끝내고 하프타임을 하버드에서 치열하게 보냈다' 는 그의 도전기이다.

낮 11시 10년 넘게 <영화음악>(음악FM)을 제작·진행하고 있는 신지혜 아나운서(사진)가 <도모하는 힘>, <시네마레터>에 이어 <땡큐 포 더 무비>를 펴낸다. '당신에게 건네는 위로 한 조각. 영화의 한 장면에서 찾아낸다.' 라는 광고문구로 짐작되듯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그녀의 이야기가 담긴 세 번째 저작이다.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음악FM)을 진행하는 김용신 아나운서는 매일 방송을 끝내고 일기처럼 써 내려간 방송후기 등을 책으로 묶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라는 클로징 멘트를 제목으로 스튜디오 밖의 소소한 일상이 잔잔하고 유쾌하게 펼쳐진다.



### 경력사원 입사

3월 2일 아나운서팀에 경력사원 공채를 통해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 대전 MBC 아나운서였던 김하나(왼쪽 사진), 기업은행과 현대자동차 사내 방송에서 일했던 조은유(중앙), MBC 스포츠채널과 한국경제TV에서 근무했던 신미정(오른쪽) 등 3명의 여성이다.

한편 프로그램 진행자의 이동이 있었다. 유영선 아나운서가 <월드뉴스>와 <마감뉴

스>에 투입되었고, 김준호 아나운서가 독립영화 프로그램인 <꿈꾸는 U> 진행을 맡아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 신입 아나운서 방송 투입

2012년 1월 1일 임용된 전형운(왼쪽 사진), 김혜지(오른쪽 사진) 두 신입 아나운서가 3월부터 정식으로 방송에 투입되었다. 2개월간의 집중 교육을 마치고 정식 라디오 뉴스와 '50분 교통정보' 등의 방송업무를 맡은 두 신입 아나운서는 계속 교육을 받으며 더 나은 방송을 하기 위



### 봄철 프로그램 개편회의 대전에서 열려

극동방송 '2012년도 봄철 프로그램 개편회의' (사진)가 2월 17일 대전 지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부 공부영 국장과 전국 지사의 팀장들은 5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봄 개편 방향을 '극동방송의 정체성인 북방 대상 프로그램 강화, 사회 주요 문제에 복음적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공익 프로그램 강화, 중앙사 사옥 건축과 더불어 효율적인 프로그램 제작·진행 및 내실화 강화' 로 정했다.

febcs는 '기회의 창, 나누는 방송' 으로 청취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으며, 극



동방송 아나운서들은 진행은 물론 제작에 참여하며 역량과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한낮의 가요선물' 매달 롯데월드에서 공개방송

김빛나 아나운서(사진 중앙)가 진행하는 '한낮의 가요선물' 에서는 작년 12월부터 매달 롯데월드에서 특집 공개방송을 마련해 청취자들에게 신나는 무대를 선사한다. 또한 지난해 종무식에서 박용환 아나운서가 2011년도 모범사원상을 수상했다. 청년들의 실업난이 문제가 되는 요즘, '열정으로 DO! DREAM' 이란 프로그램을 제작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박 아나운서는 업무영역을 넓혀 외부 취재와 진행자 섭외, 제작비 협찬까지 담당하며 노동부와 연계해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자 나섰다.



### 아나운서들이 연출, 진행자로 역할 분담해 제작하는

<오늘은 좋은날> <소중한 당신에게> <음악이 좋다> 반응 좋아

지난 개편에서 아나운서 선후배가 연출자와 진행자로 만나게 되었다. 1인 제작 프로그램과 달리 역할을 분담해 제작하는 명상포교 프로그램 <오늘은 좋은날>과 음악 프로그램인 <소중한 당신에게>와 <음악이 좋다> 등이다. TV로 편중되는 제작인력의 빈자리를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는 취지 아래 진행 및 제작을 경험한 아나운서들이 책임자로서 제작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진행자로 익숙한 아나운서가 직접 제작도 한

다는 점이 청취자들에게 친밀감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나운서 특유의 섬세한 멘트와 선곡이 청취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Zoom-in 창간 1주년 특집 Zoom In-황우겸 고문

# “뒤편보다 앞서 내가 먼저 시작해요. 일종의 개척정신이지요”

KBS TV 첫 아나운서 실장, 아나운서클럽의 산파역



지난 2011년 12월 31일 KBS TV 개국50주년기념 특별방송에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의 황우겸 고문도 출연했다. 황우겸 고문은 1951년 9월 서울중앙방송국에 입사해 라디오로 국민들을 웃고 울렸고, 1961년 서울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실장으로서 TV 방송의 여명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가 남산 중앙방송국 근처에 있던 한식집에서 시작한 아나운서 선후배간의 모임은 '청람회', '한국아나운서동우회', '한국아나운서클럽'으로 이어져 지금에 이른다. '어찌 보면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는 게 취미인 것 같다.'는 황우겸 고문은 한국JC중앙회 제13대 회장을 맡을 정도로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이다.

클럽의 크고 작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아나운서에 대한 애정을 몸소 보여주는 83세의 최고 원로 아나운서로서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창간호에 '한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라는 기념사를 기고하기도 했다. 회보 창간 1주년을 맞아 경기도 광주의 자택으로 찾아뵙고 지난날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바보상자' TV가 '행복한 상자, 즐거운 상자'가 되었으니 기쁘고 또 뿌듯합니다.

## 방송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는 원래 야구선수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인천 동산 고등학교가 당시에 야구로 유명했어요. 성균관대에 입학해서도 야구를 했는데 한국전쟁이 났지요. 부산이 임시수도일 때 아나운서 모집공고를 보고 응시를 했습니다. 그 때도 워낙 경쟁이 치열에서 나는 떨어졌나보다 포기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내 이름을 자꾸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1951년 9월 서울 중앙방송국, 서울이 아니지요. 부산에서 아나운서를 시작했습니다.

## 야구선수 출신이니 야구 중계는 자신이 있으셨겠네요!

내 자랑 같아 쑥스럽지만, 야구 중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요. 아마 현재까지도 진짜 야구선수 출신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때는 해설가도 없이 스코어북을 기록하면서 아나운서가 혼자 중계를 했습니다. 라디오는 아나운서만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상황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경기는 안보고 기록한 스코어북만 보아도 중계방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의 야구 중계방송은 정확하고 참 어려웠습니다.

## 특히 기억에 남는 중계방송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1959년 9월 제3회 아시아 야구선수권대회를 중계하러 동경에 갔을 때 스코어가 농구처럼 20대 0이어서 착잡한 심정으로 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956년 7월 29일, 미국 남가주대학 야구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동대문야구장에서 또 혼자 중계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임신한 우리 집사람이 야구장 옆 동대문 이대병원 에 입원을 했는데 다 죽게 생겼다는 연락이 왔어요. 방송을 버릴 수 없어 끝나고 갔더니 이미 첫아이가 세상을 떠났더군요. 정말 슬펐지만 그게 현장 중계하는 아나운서의 의무이고 책무이고…….

## <스타탄생>이란 오락 프로그램도 진행하셨지요?

사실 일본 NHK의 <즉흥극장>을 KBS에서 벤치마킹했지요. 태평로 공개홀에서 공개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마추어하고 기성배우하고 단막극으로 대결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시작할 때 '징징징징~' 징을 두드리고 '스타 탄생' 하고 외치는 시그널이 유명했는데, 연출가 김대규 선생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불행하게도 중간에 요절하는 바람에 내가 시나리오를 쓰고 배우도 섭외했지요. 4년 동안 골든타임에 방송해서 인기

변'이란 성명서를 내고 사표를 냈습니다. '인기만으로는 못 산다.'라는 것이었지요. 한 1년 쉬었는데, 5·16 혁명정부가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TV방송을 개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재경 장관의 요청으로 TV 개국 제작요원으로 복귀해 1961년 9월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정보다 늦어져 12월 말일에 개국방송을 했고, 이 과정을 메모했던 걸 1963년에 <바보상자>라는 책으로 엮어냈지요. 그 후 생활의 안정을 찾아 기업체로 이직해 대한항공과 동양화재해상보험 상무이사를 지냈고, '우신무역상사'라는 회사를 직접 창업해 경영했습니다.

## 아나운서를 위한 모임은 어떻게 만들게 되셨습니까?

남산 중앙방송국 아래에 '동우'라는 한식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미 고인이 되신 강창선, 장기범 선배 등 대여섯 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난 게 씨앗이 됐습니다. 명칭을 처음에는 '청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임이 잠시 깨졌다 다시 합친 것이 '아나운서동우회'였고 제가 회장을 맡았지요. 그게 클럽으로 이어졌고, 2007년 당시 최만린 회장과 김동건 수석 부회장이 나서서 고맙게도 사단법인 체제로 만든 겁니다.

##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도 벌써 1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다 협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회보를 만들었다는 건 큰 업적 중에 업적이예요. 이 회보가 없었다면 미주방송인연합회하고 연결도 안 되었을 텐데, 회보 덕분에 저도 '아, 옛날 친구들이 이렇게 지내는구나.' 하고 소식을 알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벌써 1주년이 됐으니 진짜 고맙게 생각해요.

## 후배들을 위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인기 직업이라고 해서 인기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아나운서를 할 게 아니라면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를 해야 해요. 저도 대한항공 중역으로 갔을 때 처음에 괘시를 무척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다시 했지요. 또 우리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선후배가 서로 아끼고 위하는 단결심이 부족해요. 그리고 현역들이 품위를 지켜줬으면 합니다. 아나운서의 희소가치는 줄었지만, 어디 내놓아도 멋진 후배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늘 자랑스럽게 여기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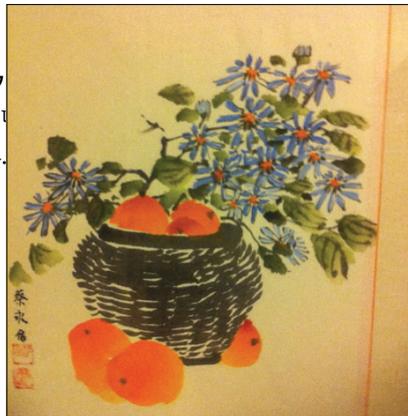
유혜진 객원기자

## 작년 연말 남산송신소를 찾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감개무량하지요. 거기서 남산방송국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사이의 오디오라인을 가끔 아이들이 엿사먹는다고 잘라가서 방송이 중단됐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인력도 풍부하고 시설도 좋고 하늘과 땅 차이지요.



채영신  
1975년~78년  
KBS 아나운서,  
EBS 교육방송 교  
재 집필과 진행, 현  
서울 영등초등학교  
교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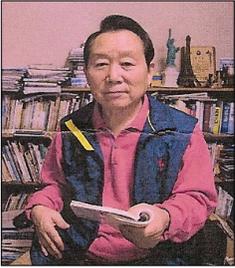
안주희  
1976년~80년  
MBC 아나운서, 경  
향미술대전특선, 한  
국현대미술프라하  
전, 그룹전 다수 참  
여





# 회원 동정

## '거북 바위가 묻는다' 시집출판·시낭송회 개최 이후재(전 KBS)



'3년 전 펴낸 '땀 흘리는 산' 이어 두 번째 시집 '거북 바위가 묻는다' 를 출간하고 3월 21일 (수)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 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시집 출판·시낭송회를 개최한다.

1970년 KBS에 입사한 이 회원은 현재 한국언론인협회와 '월드뉴스' 논설위원으로 활

## '소크라테스의 스피치 철학' 상·하권 완간 전영우 고문(전 DBS-KBS)



2001년 9월에 나온 '소크라테스의 스피치 철학' (민지사) 상권 '고르기아스-레토릭에 대하여' 에 이어, 올 3월 15일 '프로타고라스·파이드로스-소피스트에 대하여' 를 펴냈다.

또한 최근 현대수필과 수필춘추에 각각 게재한 '도산공원의 아침', '만년필 이야기' 등 수필도 쓰고, 서울신학대학원 외래교수로 스피치를 강의하고 있다.

## 한국터키친선협회 제2대 회장으로 선임되 박찬숙 부회장(전 KBS)



(사)한국터키친선협회 2012년 정기총회에서 이시형 초대 회장에 이어 새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99년 8월 터키 지진 대참사 때 터키 지진 돕기 시민운동 발기인 대표로서 20억 원이 넘는 모금을 주도한 박 부회장은 그 후 2001년 발족한 한국터키친선협회를 통해 2002

한일 월드컵 터키 국가대표팀 응원과 참전용사 초청, 터키

## 안식년 보내고 강단에 복귀 이병혜(전 KBS)



언론학 박사 학위 취득 후 2005년부터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이 회원이 안식년을 보내고 강단에 복귀했다. 1978년 KBS 5기로 입사, 9시 뉴스앵커를 맡았던 이 회원은 봄철 프로그램 개편으로 방송시간이 변경된 '한국인' (KBS 1TV 토요일 오전 11시30분~12시)을 진행하

## 1978년 가수 백년설 심연옥과 대담방송 DVD와 CD로 재생 김영우(전 MBC)



MBC 1기생으로서 1963년 TV방송학교로 유학 오며 미국에 정착, 미주 한인방송에서 활동한 김 회원이 가수 백년설, 심연옥 씨와 대담했던 방송을 DVD와 CD로 재생했다.

이는 가수 백년설 씨가 작고하기 1년 전인 1978년 심연옥 씨와 함께 LA 한국일보 TV방송에 출연,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고뇌와 나라 잃은 슬픔을 노래하고 울분을 달래주었다는 이야기를 고인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서울종합예술학교(SAC)교수로 임용돼 김자영(전 KBS)



올해 방송진행 전문 4년제 학사과정을 개설한 서울종합예술학교(SAC) 아나운서·MC 전공 과정 교수로 임용되었다.

1987년 KBS 14기로 입사한 김 회원은 서강대학교연문대학원에서 방송, 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 영어영문학, 보스턴대학교대학원에서 방송제작 석사를 받았다.

## JTBC 드라마 '아내의 자격' 에서 연기 대결 임성민, 최은경(전 KBS)

1994년에 KBS에 입사한 20기 임성민 회원과 1년 후배인 21기 최은경 회원이 드라마에서 연기 대결을 펼치고 있다.



## 차인연합회 사무총장으로서 총회 마치고 '차의 날' 행사 준비 들어가 전우벽(전 CBS-KBS)



(사)한국차인연합회 사무총장으로서 2월 23일 총회를 마치고 오는 5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운현궁 일원에서 열릴 제32회 '차의 날' 기념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 이사로 선임되 유영미(전 SBS)



2월 16일 임기 3년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 이사로 선임되었다. 유 회원은 1986년 울산 MBC에서 시작해 SBS 공채1기로 20년간 근무하고 작년 연말 퇴직했으며, 1998년부터 라디오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석사 학위를 딴 전문가답게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의 진행과 연출을 맡고

## (주)KT스카이라이프 총괄전무 겸 콘텐츠 본부장으로 승진 이성수(전 KBS)



2월 1일 (주)KT스카이라이프 총괄전무 겸 콘텐츠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이 회원은 1979년 KBS 6기로 입사해 프로듀서로 활동하다 1994년 퇴직한 후 GTV 사장, 인터브리스 프러덕션 대표를 지냈으며, 2010년 한국디지털위성방송(2011년 4월부터 'KT스카이라이프' 로 상호 변경) 정책협력실장으로 이직했

## '개그콘서트' '생활의 발견' 에 출연 이금희(전 KBS)

1월 29일 방송된 KBS '개그콘서트' '생활의 발견' 에 출연해, 개그맨들의 대사 중 혼동되어 쓰기 쉬운 어휘와 발음을 바로잡



## 세계 맛집 소개 블로그 '푸드파이터' 운영자 '맛있는 도쿄' 출간기념 사인회 열어 강수정(전 KBS)

작년 연말 도쿄의 숨은 맛집들을 담은 '맛있는 도쿄' 를 출간하고, 1월 28일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사인회를 열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KBS에서 활약했던 강 회원은 세계의 맛집을 소개하는 블로그 '푸드파이터' (www.foodfighter.co.kr) 도 운영 중이다.



## BTN 설날특집 법륜스님 시국대담 진행 이계진 부회장(전 KBS-SBS)



1월 23일 오후 7시, BTN 불교TV 설날특집 시국대담 '법륜스님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을 진행했다. 또한 1월 12일(목) 밤 11시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으로서 돈봉투 정국과 관련해 TV조선 최·박의 시사토크 '판' 에 출연했다.

## '이든네이처' 회사 사세 확장으로 사무실 이전 정미정(전 KBS)



사세 확장으로 1월 7일, 사무실을 서초구 양재동 75-1 에원빌딩 4층으로 이전했다. 1989년 KBS 16기로 입사, '가요톱텐, 주부가요스타' 등을 진행했던 정 회원은 2002년 퇴직 후 이룸라이프 부사장을 거쳐 발효건강식품 제조, 유통회사인 이든 네이처

**우리말 다듣기**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무도회에의 초대

→ 무도회 초대, 무도회에 초대합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 외국인에게 한국어 가르치기

미국과의 공식 회담을 위해

→ 미국과 공식회담을 하기 위해

세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은

→ 세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우주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 우주여행을 시작합니다.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요구된다.

시

노래의 미래

이상협(KBS)



2002년 입사, 1FM 정다운 가곡, 1TV 주말 정오뉴스 진행 (이규향 회원 아들)

누구나 구름을 타보면 풍경의 속도를 잴 수 있지  
각자의 하늘로 구름을 배급하는 바람이란  
늘 하늘 아래를 부는 일이지만 고속高速에서  
집보단 마을이 산보단 먼 산이 천천히 지나지

누구나 잔가지가 되어 걸어보면 나무의 속도를 알 수 있지  
백오십 년 동안 민등산 정수리까지 걸어 올라간 자작나무의 걸음걸이를 배운다면 풍경쯤은 가까이 두어도 천천히 지난다

물의 속도는 구름에게 물어 볼 것 속도보단 둔갑술을 묻는다면  
흥이 나서 비가 되든 거만하게 바다를 보태든 구름의 일이겠지만  
구름 속에서 구름을 더듬는 건 삼가시길  
마음을 멀리 두어 보는 것을 종종 구름이라 부르지

나는 뜬구름 켜고 음악의 속도를 생각해  
배호의 탕고? 오지 않는 노래를 듣자

편집후기

“계간지는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이야!  
예상은 했지만 3개월마다 발행하는 것도 쉽진 않네요. 예고~”

아나운서 직종의 신문이랄까? 수년 전부터 의견만 주고받던 회보 발행이 전격 실행에 옮겨지고 창간 1주년을 맞은 지금, ‘정말 잘했다.’ 싶고, ‘잘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해만 갑니다. 특히 원로 선배님들과 많은 회원님들의 진심어린 따뜻한 격려 전화와 멀리 뉴욕과 LA에서까지도 회보를 받아보는 즐거움을 전해올 때, 더 없는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작년 3월 15일 4면으로 창간호를 발행했는데, 내용을 더 알차게 꾸미기 위해 제2호부터 8면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편집위원들의 할 일이 두 배 이상 많아진 것이지요. 매번 기획, 자료수집, 기사 작성과 청탁, 사진 입수, 편집·교정 작업하느라 4, 5 차례 한 자리에 모여 긴 시간 작업합니다.

일이 익숙지 않아 어려움도 따르지만, 그것은 편집위원들이 마땅히 져야 할 명예로운 짐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보에 기여이 광고를 협찬해주신 광고주님과 광고 수주에 힘써 주신 김동건 회장님, 최평웅 회원님, 편집회의 때마다 회사 회의실을 내주고 다과 등 편의를 제공하는 정미정 회원님, 고맙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각 방송사 아나운서실장을 비롯해 아나운서연합회 회장 및 각 방송사 지회장,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방송가 소식과 아나운서들의 활약상을 전하며 회보를 다채롭고 생기발랄하게 꾸며주는 현역들의 수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매호 회보를 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춘하추동 블로그’ 운영자 방우희 이장춘 이사님, 한박무 전 기자회견 사무총장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덕분에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가 존재하고 한층 빛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발대회나 시상식 사회 볼 때 시간 맞추어 자르려고만 했는데  
소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휴~”



편집위원 일동  
정미정 회원의 회사 회의실에서 올해 첫 편집회의를 마치고(왼쪽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형균, 정미정, 정경래, 이은정, 이해옥, 황인우, 김규홍, 박민정

알림

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연회비 내신 분(3월 10일 현재)

이장우, 전영우, 원창호, 박민정, 김규홍, 정경래, 이해옥, 이형균, 황인우, 차기정, 최승일, 반주원, 김충식, 이인숙, 최평웅, 이지연, 이정부, 정경수, 원예종, 박영웅, 배덕환, 이우백, 이병열, 이은정, 최만린, 남성희, 이현숙, 이후재, 성선경, 황우겸, 안윤숙, 이지현, 윤영중, 차인태, 정영희, 윤성원, 이소연, 김윤한, 임택근, 민창기, 김상준, 임국희, 임주완, 우제근, 권혁화, 이계진, 박종세, 양진수, 박찬숙, 황량, 양창석, 맹관영, 채영신, 정흥숙, 성경환, 오미영

기부금 내신 분

황우겸 50만 원, 차인태 100만 원, 성연미 200만 원, 김윤한 20만 원, 우제근 50만 원

축하합니다

고성균, 이소연(전 KBS) 5월 26일(토) 오후 5시 30분 KBS홀에서 장녀 지현 양 혼사  
문지애(MBC) 5월 4일(금) 오후 7시 논현동 빌라 드 베일리에서 선배 아나운서였던 전종환 기자와 혼인

안주희(전 MBC) 4월 11일(수) 오후 5시 삼성동 웨딩의 전당에서 장녀 박진경 양 혼사  
차다혜(KBS) 3월 18일(일) 12시, 삼척 씨스포빌 콘도에서 사업가와 혼인

최지은(tbs) 2009년 11월 선배 아나운서였던 신용훈 한국경제TV 앵커와 혼인 후 2월 15일 득남

김지윤(KBS) 2005년 혼인, 2008년 첫딸에 이어 2월 20일 둘째딸 순산

남선현(전 TBC, jtbc 사장) 2월 11일 차남 성진 군 혼사

이지연(OBS) 2월 11일 7년 넘게 사귀 정형외과 의사와 혼인

최혜림(SBS) 2011년 5월 혼인 후 2월 14일 득남

김지연(SBS) 2008년 첫딸에 이어 1월 9일 둘째딸 순산

조의를 표합니다

김국향(KBS) 3월 9일 모친상

정회준(전 KBS) 2월 25일 모친상

우제근(전 DBS-KBS, 전 감사) 2월 24일 모친상

최승돈(KBS) 2월 10일 부친상

정경래(전 KBS) 1월 25일 빙부상, 고영희(전 KBS) 부친상

이윤아(SBS) 1월 29일 부친상

박병학(전 TBC-KBS) 1월 21일 모친상

성기영(KBS) 1월 15일 시부상

수고하셨습니다

30년 근속상: KBS 아나운서실 김성수 실장과 유애리 아나운서

20년 근속상: 성기영 팀장과 임수민, 태의경, 정용실 아나운서

퇴직: 최남식(청주 MBC), 유영미(SBS), 김원욱(PBC)

(편집자 주: 현직에 계신 분들은 클럽에 근속상 수상과 퇴직 소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